

배포 일시	2022. 12. 20.(화)		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지원팀	책임자	팀 장 박동주 (044-201-3321)
		담당자	사무관 김애리 (044-201-3314)
		담당자	사무관 장은석 (044-201-4150)
	법무부 법무심의관실	책임자	법무심의관 정재민 (02-2110-3164)
		담당자	검 사 석수민 (02-2110-3502)
		담당자	서기관 임성택 (02-2110-3503)
보도일시	2022년 12월 20일(화) 13:00 이후 보도 가능		

법무부·국토부,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 논의 본격화

-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 후속조치 조속 추진을 위해
 20일 관계기관 및 민간전문가 합동 법률지원 전담조직 출범 -

- 법무부(장관 한동훈)와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서민 임차인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12월 20일 오전 10시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「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전담조직(이하 TF)」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.
- TF는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(12.15)의 후속조치로, 법무부, 국토교통부, 경찰청, 주택도시보증공사(이하 HUG), 대한법률구조공단(이하 공단)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였으며, 법무부 법무실장(직무대리)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공동 팀장을 맡는다.
- TF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공단, 법률홈닥터, 마을변호사를 통한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등 법률 지원 방안, HUG의 대위변제 기간 단축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.
- 특히, 최근 임대인이 사망하면서 채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임차인이 보증금을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한다.

- 아울러, 피해 임차인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, 필요한 제도개선 및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.
- 법무부 권순정 법무실장(직무대리)은 “TF에서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복잡한 법률쟁점들을 신속히 검토하고, 소송구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” 면서,
 - “TF 논의과정에서 제도적 미비점들이 확인되면 제도개선 방안까지 마련하겠다” 고 밝혔다.
- 국토교통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“임차인의 전 재산이나 다른 없는 전세보증금을 매일 우려가 커지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” 이라면서,
 - “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조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, 추진상황을 피해 임차인과 공유하는 한편, 추가적인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” 라고 밝혔다.